

자연을 담은
상하농원 건축물
디자인 안내



세상에 없는
가상의 마을 '운계리'를
모티브로 탄생한
농어촌 테마공원

상하농원



SPRING LANDSCAPE OF UNGEYRI
(IMAGE COURTESY OF KIM BEOM)

상하농원의 모델이 된 것은 '마을'입니다.

아트디렉터 김범은 아트북 『고향』에서 '운계리'라는 존재하지 않는 마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자신의 고향을 모르거나 알아도 감추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가상의 마을입니다.

김범은 이 책을 통해 그 가상의 마을에 살았던 주민으로 위장하기 위한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공간이자 현대인의 잃어버린 고향이었던 마을, 운계리는 상하농원이라는 모습으로 2016년 4월 22일,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상하농원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건축가 최춘웅 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은 매일유업과 전라북도 고창군의 협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이 모델이 된 상하농원 각각 개인과 가족들의 삶을 담은 장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 공간이며 1차 산업 지역을 뜻하는데요.

한 장소에서 먹거리의 생산-가공-판매-유통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순환과정은 각 시설 간에 상호 유기적인 마을의 특성을 잘 나타냅니다. 또한 상하농원은 고창지역의 친환경 산업을 이끌어가는 생산단지이며, 고창지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터이기도 합니다. 실제 상하면의 매일유업 공장과 상하농원의 직원들은 대부분 고창 및 전북지역 사람들이며, 상하농원에서 생산·가공·판매하는 식품은 '고창군의 산물'입니다.

2008



12. 상하농원 프로젝트 시작

2010



07. 유기농목장 완공

2011



02. 아트디렉터 김범작가, 건축자문 최춘웅 교수 합류 (건축설계 시작)

2013



12. 토목공사 착공

2015



09. 농원회관, 햄공방, 상하키친, 과일공방, 빵공방, 발효공방, 체험교실 완공
시범운영 시작

2016



04. 농원식당, 카페상하목장, 농원상회 완공
상하농원 전 시설 오픈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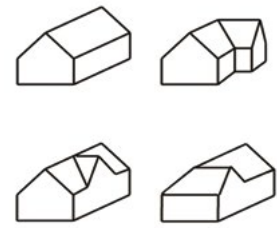
07. 파머스빌리지 오픈

농원의 배치

상하농원 중앙의 부지는 주변보다 높은 언덕의 중턱에 조성된 평지입니다. 이러한 높낮이의 차이로 상하농원의 공간은 주변의 농지와 도로 등 외부로부터 적절히 차단되며, 주변 평야와 강선달 저수지가 내려다보이는 좋은 전망을 지닙니다.



- | | |
|---------------|---------|
| 1. 햄공장, 상하키친 | 2. 빵공장 |
| 3. 농원상회, 과일공방 | 4. 동물농장 |



전원적 미학과 풍경

상하농원에서 '전원적 미학'은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농원은 6차 산업적 특성을 가진 곳이지만 기본 구성은 농지와 초지 등 1차 산업의 공간이 중심이 됩니다. 1차 산업에 대한 우리의 정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강, '인간의 건강한 노동'이 주는 자부심, 축복과 풍요 등의 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원형적'인데요. 상하농원 디자인에는 박공(양편에八字 모양으로 붙인 두꺼운 널)과 소박함을 바탕으로 원형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건강한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각 생산업의 아름다움과 자부심

상하농원은 건물을 통해 생산 및 가공 작업의 가치와 미학을 담고 멋과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건물의 양식은 식재료와 음식문화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예컨대 유기농목장·햄공방은 서구적 낙농업 문화, 빵공장·발효공방의 경우 한국적 전통을 반영했습니다. 농원상회·과일공방은 일반적이고 중성적인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또한, '마을'을 모델로 하는 농원의 특성 그리고 친환경적 소규모 개별생산의 가내수공업과 관련해 농원의 소규모 공방들은 '가옥'과 비슷한 형태를 지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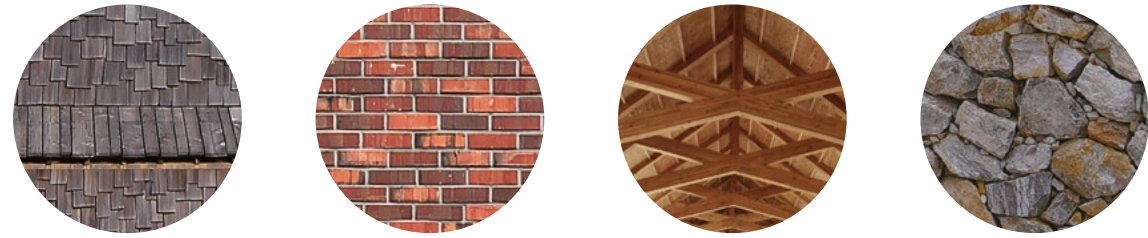
6차 산업과 미래

6차 산업은 농축수산업(1차), 제조업(2차), 서비스업(3차)이 융·복합된 산업 구조를 말합니다. 즉,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농가의 소득, 일자리 증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차 산업의 특성을 살린 체험공간

상하농원은 전형적으로 1, 2, 3차 산업이 혼합된 6차 산업의 구성을 갖춘 곳입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업종들이 잘 운영되도록 하고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산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친환경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입니다. 상하농원의 모든 공방들은 견학 공간을 가지고 있어 생산 과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과일공방과 발효공방에서는 생산자의 설명, 시식 및 시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가꾸는 삶, 건강한 자연미와 환경친화성

상하농원 건물은 화학적 가공이 적고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며,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흙·벽돌·목재·자갈·자연석 등 자연적 소재들이 각 건물의 기능과 작업의 성격, 그리고 내·디자인의 적합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인공적인 재료들에 비해 이 재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미를 갖춘 채 자연스레 낡아지고, 필요에 따라 자연스레 수리해가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하농원의 문화성 '젊음'

상하농원에서의 '젊음'은 항상 새롭게 살아나는 자연,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산업, 그리고 농어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강한 노동력과 미래의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이곳의 교육·전시·행사 등의 프로그램과 디자인의 기획에서는 젊은 감각과 창의성이 함께 표현되고, 교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체험교실의 프로그램과 동물농장 및 텃밭 체험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연이 주는 풍요와 감사, 건강한 노동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할로윈 이벤트 등 연중 신나는 이벤트들은 먹거리 교육이라는 주제를 담아 젊은 농부들의 감각으로 기획되어, 1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상하농원 건물 디자인 소개

상하농원의 각 건물은 주제에 따른 의인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상하농원을 하나의 마을로 볼 때, 각각의 건물들이 그 마을을 이루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사람이 종사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표현하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마을에서의 역할'과 '각각 다른 업종의 전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농원회관

마을회관의 가게 아저씨(60세)

마을 입구의 마을회관 옆에서 농작물 장사를 하며 마을의 주요 상업(유통)을 담당하는 아저씨. 동네 사람들이 지은 건물

공사기간: 2년 3개월

완공일: 2013년 12월 2일

건축면적(m²): 378.00



디자인

농원의 활동을 지도하며, 관련 상업에 담당하는 중년 남성의 모습을 모티브로 하여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건물의 내·외부는 소박하지만 직선적이고 구성적인 형태를 지닙니다.

재료와 구성

넓고 쾌적한 공간의 실용적 조성에 적합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철골재가 사용되었고, 내·외부 입면은 자연친화적인 목재로 마감되었습니다.

역할

상하농원의 '입구' 역할을 하는 건물이며, 판매 공간과 전시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판매 공간인 '퍼머마켓'은 지역 특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소매상이며, 전시공간인 '친환경 전시관'에서는 유기농, 친환경, 농축산업 및 지역 문화에 대한 홍보와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햄공방

동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 (75세)

마을에서 가장 큰 유지, 햄과 소시지를 가공해 온 근엄하고 건장한 동네 할아버지와 할머니 주인 할아버지가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 지은 건물

공사기간: 1년 9개월

완공일: 2015년 12월 4일

건축면적(m²): 771.68



디자인

건물의 형태는 유럽의 음식문화인 소시지와 햄에 어울리도록 했으며 상하키친과 더불어 육류의 훈연 가공에 종사해 온 노부부의 모습을 떠올리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건물의 높이, 입면의 주름진 요철, 높은 굴뚝 등은 육가공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을 나타냅니다.

재료와 구성

햄공방은 상하키친 및 농원사무소 건물들과 더불어 철골구조와 조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지붕은 실용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패널, 지면과 건물 하부는 자연 축석으로 마감했습니다. 벽돌 색상은 흑색과 적색의 2가지 색조를 혼합하여 사용했는데, 흑색은 햄공방의 훈연을, 적색은 자연환경에 어우러지는 편안함을 표현하고자 선택했습니다. 내부 공간은 생산, 가공 과정에 맞추어 구성하였습니다.

역할

지역 농가에서 공급한 돈육을 가공하여 햄과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농원 내 공방으로는 가장 큰 가공시설로서, 상하키친 및 농원사무소 건물들과 하나의 구성을 이룹니다. 생산 공간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관리인증 기준(HACCP)'에 맞추었으며, 통유리를 사용하여 밀폐성을 갖춘 별도의 견학 공간에서 생산과정의 견학이 가능합니다.





03
MAP NUMBER

상하키친

동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 (75세)

마을에서 가장 큰 유지, 햄과 소시지를 가공해 온 근엄하고 건장한 동네 할아버지와 할머니 주인 할아버지가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 지은 건물

공사기간: 1년 9개월

완공일: 2015년 12월 4일

건축면적(m²): 771.68



디자인

소박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이 건물은 원목가구를 주 소재로 한 인테리어를 통해 차분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외부 박공면은 은밀하게 얼굴의 형상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재료와 구성

햄공방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의 재료로는 철골구조에 벽돌, 그리고 자연석이 사용됐으며, 내부 철골조는 간단한 트러스 구조(지붕 밑 공간에 엑스자나 삼각형 모양으로 설치되는 철골 뼈대)입니다. 지하에는 햄공방 및 농원사무소와 공유하는 기계실, 저온 창고, 그리고 친환경 설비인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역할

햄공방에서 만들어진 햄과 소시지, 그리고 농원에서 수확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햄공방의 견학 공간을 지나도록 되어 있어서,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햄·소시지 생산의 현장성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옥외 테라스에서는 햄공방의 생산품을 비롯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04
MAP NUMBER

농원사무소

햄공방에서 일하는 동네 할아버지의 동생(70세)

햄 소시지 가공 운송 등 형의 공장 일을 도와 일하는 할아버지 주인 할아버지가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 지은 건물

공사기간: 1년 9개월

완공일: 2015년 12월 4일

건축면적(m²): 221.42



디자인

햄 공방의 동생 격인 이 건물은 햄공방 및 상하키친과 조화를 이루며 같은 재료로 지어졌지만, 조금 더 단순하고 현대적입니다. 옥외 테라스와 지하의 회의실은 현대적인 곡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지하층 전면은 전면창을 조성하고, 초목의 식재가 가능한 중정과 1층 옥외 테라스도 마련했습니다.

재료와 구성

햄공방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의 재료로는 철골구조에 벽돌, 그리고 자연석이 사용됐으며, 내부 철골은 트러스가 없는 기본 구조이며, 천장재와 함께 노출되어 있습니다.

역할

농원사무소는 상하농원을 관리하고 제반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 전용 공간으로써 지상층과 지하층의 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층은 회의 및 작업 공간, 그리고 지하층은 사무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농원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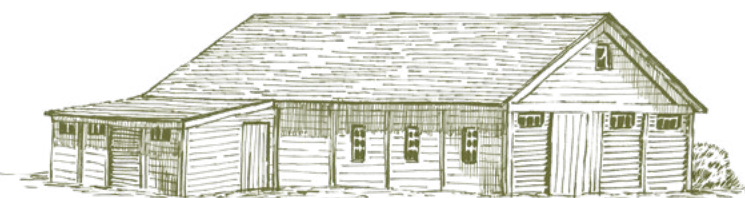
마을 청년 2 (23세).

이웃집 빵공방 아주머니의 아들이자 과일공방 청년의 동생으로, 농사를 지으며 농작물을 판매하는 청년.

공사기간: 11개월

완공일: 2016년 5월 6일

건축면적(m²): 168.00



과일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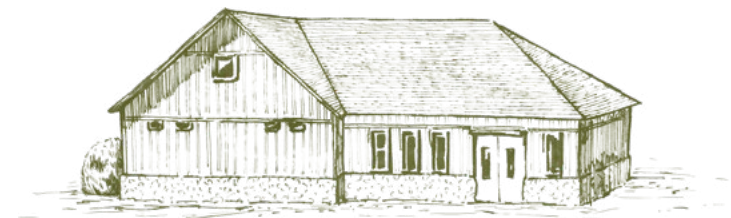
마을 청년 1 (25세)

이웃집 빵공방 아주머니의 아들이자 농원상회 청년의 동생이며 주로 과일 농사를 짓는 청년. 아주머니의 남편과 두 청년(아들들)이 지은 건물

공사기간: 2년 5개월

완공일: 2016년 4월 19일

건축면적(m²): 164.00



디자인

역시 젊은 청년을 모티브로 하는 농원상회는 과일공방과 같은 재료인 목재로 지어졌으며, 주변 건물들과 조화롭도록 크기, 모양, 색채 등이 세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옆의 과일공방과 비교하여 농원상회의 모습은 조금 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료와 구성

목조건물인 농원상회는 입면과 더불어 지붕 역시 목재의 너와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소규모의 유통기능을 살려 카운터가 판매 공간과 라운지 두 면으로 연결될 수 있게 구성하여, 기능적이고 캐주얼한 성격을 표현하였습니다.

역할

여러 공방에서 생산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방문자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공간, 음료와 간단한 먹거리로서 제품을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카페테리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통나무집을 연상시키는 형태, 어두운 외벽과 하단의 자연석, 내부의 힘 있는 구성의 목구조, 캐주얼한 재료와 비가공적 인테리어 등은 젊음과 건강한 노동력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달콤하고 향긋한 잼과 과일즙 등을 생산하는 건물에 대한 동화적인 낭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재료와 구성

내외부의 입면 상단은 두텁고 불규칙한 간격을 지닌 목재의 널로 벽체의 질감을 조성해 농원의 젊음과 생명력을 주제로 단순하고 힘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외부의 하단은 상단에 맞추어 다소 색이 어둡고 울퉁불퉁한 자연 축석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재질감과 캐주얼한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역할

고창 지역의 각종 과일로 잼·청·건과·과채주스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며, 생산시설과 제조과정을 견학할 수 있도록 견학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견학로에는 제품을 보여주는 진열대와 시범, 시식을 위한 시연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MAP NUMBER
07

빵공방

이웃집 아주머니 (55세).

농사일을 돕고 밥을 지으며 떡과 술을 만드는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친정아버지 또는 남편이 지은 건물

공사기간: 2년 5개월

완공일: 2016년 4월 19일

건축면적(m²): 180.00



디자인

한옥의 양식을 바탕으로 곡물을 다루어 여러 가지
음식물을 생산하는 전통적 여성상, 또는 어머니상을 나
타낸 건물로 한국적인 분위기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벽의 상단을 둘러 전통적, 여성적 성격의 장식
창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재료와 구성

자연재인 목구조에 황토, 평기와, 자연석 등이 사용
되었습니다.
견학로는 생산시설의 청결을 위해 구획을 분리하였
으며, 견학 공간 내부에는 시연 창구와 제품의 진열대를
설치하여 공방 생산자가 직접 제조과정과 제품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할

각종 빵과 디저트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생산 시설과 제조 과정을 견학할 수 있도록 내부 구획이
분리된 견학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MAP NUMBER
08

발효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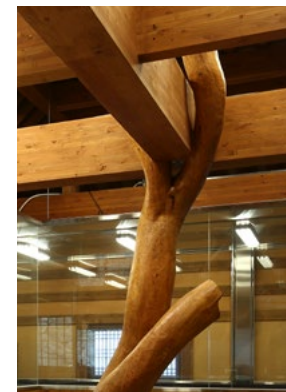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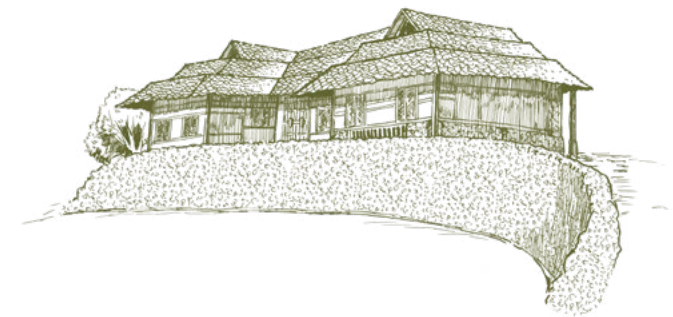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80세)

발농사를 지어 온 할아버지와 고추장, 된장을 담그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에 지어 계속 고쳐 온 건물

공사기간: 2년 5개월

완공일: 2016년 4월 19일

건축면적(m²): 267.96



디자인

건물을 지탱하는 2개의 소나무 기둥과 건물 정면의
두 얼굴 인상은 전통과 집안의 어른들을 의미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은밀히 상징합니다.
연륜이 많은 노부부라는 설정은 생산품의 전통과
전문성, 그리고 오랜 건강과 행복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건물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했으며, 언덕을 등지는 배치는 전통적 배산임수의
성격을 지니는데요.
특히 박, 호박, 토란, 그리고 장류에 들어가는 채소,
자연화 등 한국적 정서를 짙게 나타내는 조경이
조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재료와 구성

전통한옥 방식의 목재 골조를 가진 너와 지붕 건물로,
주 재료는 목재와 자연석, 그리고 황토입니다.
건물의 주변에는 전통 장류의 원활한 생산과 장기 보존
등을 위해 자연석 장독대들을 자연스럽게 놓았습니
다. 메주의 숙성을 위해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숙성실, 그리고 외부 공기를 통해 메주 등이 자연적
으로 건조될 수 있도록 하단이 개방된 건조실이 있
습니다.

역할

고창의 대두를 사용한 된장을 비롯해 각종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생산현장의 제조공정을
견학할 수 있도록 내부 구획이 분리된 견학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농원식당

동네 아저씨 (50세).

마을 사람들이 가는 식당의 주방장 아저씨
아저씨가 오래전부터 있던 낡은 건물을 고쳐 식당으로 이용해 온 건물.

공사기간: 11개월

완공일: 2016년 5월 11일

건축면적(m²): 511.26



디자인

건물 외관은 상단에 지붕처럼 유리온실이 조성된 붉은 벽돌로 지어져 간결한 느낌을 주며, 클래식한 아치 구조의 내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층 내부 공간에서 음식 조리공간이 넓게 분할되어 있으며, 전면의 유리창을 통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료와 구성

철골 조적 건물로, 상부에는 철골/알루미늄 구조의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식사 공간에는 2층의 온실이 연계된 자연채광의 중정(건물 안이나 안채와 바깥채 사이의 뜰)이 있으며, 건물 뒤쪽에는 숲 전망을 가진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역할

바비큐를 주제로 하는 식당으로 지역의 안전한 식자재와 건물 상부의 온실에서 재배한 친환경 야채가 사용된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되어 온실의 채소재배에 적합하며, 건물 후면의 야외 테라스에 드리워지는 그늘은 야외 식사에서 강한 햇빛을 피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체험교실 A, B

중년 부부(48세),

자신의 축사에서 젖소를 기르는 남편(체험교실 A)과
밭에서 신선한 야채를 재배하는 아내(체험교실 B).

공사기간: 1년 2개월

완공일: 2014년 12월 31일

건축면적(m²): A동: 240.00 / B동: 144.00



디자인

농축산물의 생산, 음식물의 가공, 조리를 직업으로 하는 중년 부부를 소재로 나란히 배치된 체험교실 A, B는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험교실 A의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의 건물이지만 내외부의 가로, 세로 선들의 구성이 강조된 차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목재와 갈색 벽돌, 금속 지붕 등을 통해 갈색조의 중후한 분위기를 지닙니다.

체험교실 B는 A보다 작고 단순한 형태이지만, 골강판, 천창, 블록, 조리공간의 타일 등 보다 텍스처가 있는 다양하고 감각적인 물질성의 재료가 돋보입니다.

가구와 조명 등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여성적 정서를 지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재료와 구성

체험교실 A는 치즈·소시지 등의 서구적인 풍미와 어울리도록 목구조가 사용되었으며, 내외부의 입면도 목재로 마감되었습니다.

내부 중앙에 기둥 구조가 적용되는 대신 다수의 목재 트러스가 적용되어 남성적이고 차분한 공간적 성격을 가집니다.

여성적 성격의 건물인 체험교실 B의 건물 내부는 주로 채소류의 가공 작업에 적합하도록 물에 대해 내구성이 있는 골강판과 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블록과 목재도 사용되었습니다.

천정에는 넓은 채광 창이 있어 내부에 빛과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할

체험 교육 시설로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 직접 아이스크림, 소시지, 치즈 등의 제조과정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입니다.

생산시설과 식당 등을 지나 초지에 인접한 조용한 위치에 지어졌으며 중앙 경작지를 배경으로 소박하고 전원적인 풍경을 조성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1. 체험교실 A
2. 체험교실 B



카페 상하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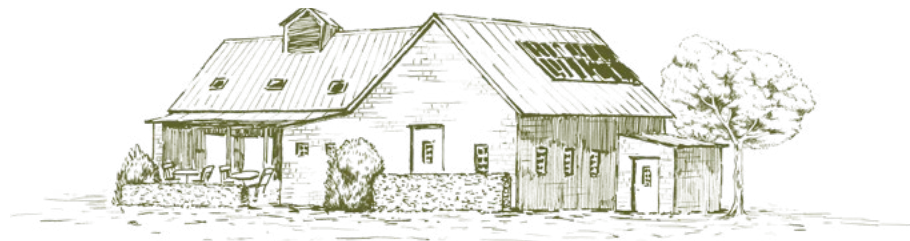
나이 든 미혼 여성 (34세)

향기 좋은 차와 커피를 끓이고 맛있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음료를 만드는 미혼 여성
그녀가 어떤 집 또는 작은 공장을 고쳐 쓰는 건물.

공사기간: 12개월

완공일: 2016년 7월 25일

건축면적(m²): 324.49



디자인

빙과와 케이크 등의 음식과, 각종 음료의 맛과 향
을 다루는 젊고 세련된 여성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
니다.

전면 창 상단의 벽돌, 외부 하단의 블록, 가는 철골
트러스 등은 감각적인 여성성을 돋보이게 합니다.

재료와 구성

이 건물의재료는 철골·목재·벽돌·블록·골강판 등
다양하고 혼합적인데, 다양한 음료와 다과의 맛과
향을 의미합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많은 천창을 설치하여
적절한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으며,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역할

고품질의 커피 및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료와 차,
케이크,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
간입니다.

주변으로는 적절한 높이의 조경이 조성되어 정서적
풍미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동물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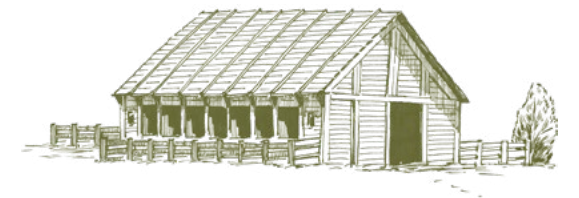
목장 소녀 (18세)

집안 일을 도와 젖소를 먹이고 소축사의 동물들을 돌보는 소녀.
소녀의 아버지가 지은 집.

공사기간: 6개월

완공일: 2016년 5월 31일

건축면적(m²): 86.40



디자인

상대적으로 작은 이 건물은 체험관 A, B 부부의
딸이며, 집안일을 돕고 작은 가축들을 돌보는 소녀를
상징하는데요,

이 소녀는 전원의 아름다움,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풍요로운 농촌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료와 구성

목조건물로 내외부에 조성된 목재 울타리는 조립식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조립식 완구처럼
필요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축의 종류와 크기, 계절에 따른 채광, 보온, 환기
등 다양하고 가변적인 필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입면에는 동물들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 옥
내·옥외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할

작은 가축들의 생태를 관찰하고 사육과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축사로 가축들에게 조용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주고, 냄새 또는 소음으로부
터 분리될 수 있도록 다른 건물들로부터 거리를 두
고 배치되었습니다.

유기농 목장과 연결되지만, 가축들과 서로 간에
방해가 되지 않고 가축방역상 안전한 거리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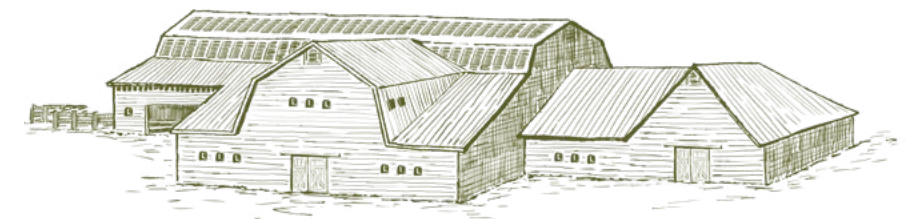
유기농목장

유기농 우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상하농원이 있기 이전인 2010년 7월에 지어진 건물. 상하농원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기획되어 다른 건물들과 달리 의인화 캐릭터가 없지만, 전체적인 상하농원을 그리는 데 원초적이고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함.

공사기간: 7개월

완공일: 2010년 6월 23일

건축면적(m²): 2,223.00



디자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낙농업의 전원적 정서를 표현하고 깨끗하고 너른 목초지와 더불어 유기적이고 순환적인 생태의 관계를 하나의 풍경으로 보여줍니다.

건물 외부의 붉은 색상은 푸른 목초지를 포함하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신선한 우유'의 이미지를 조화롭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료와 구성

철골조 건물이지만 자연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면에는 목재가 사용되었으며 환기와 채광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지붕에는 금속판을 사용하였습니다.

금속 지붕에는 젖소의 생육에 적합한 빛의 양을 고려하여 투광성 재료의 천창과, 충분한 통풍을 가능하게 하는 그릴창이 설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착유실의 공간은 방문객이 적당한 거리와 높이에 서 착유 과정을 견학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역할

최적의 환경에서 젖소를 사육하여 순수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농원 내에서 가장 큰 공간인 이곳은 퇴비사 및 목초지와 연계해 순환적 유기농 목축이 이루어지고 젖소의 사육 및 착유 과정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와 목초지에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여 젖소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되며 외부적 오염요소가 최소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파머스빌리지

마을의 헛간과 온실

마을의 곡식, 목초, 농기계 등을 모아 두던 커다란 헛간, 앞쪽은 화초를 재배하는 온실. 동네 사람들이 헛간으로 지은 것을 개조한 건물.

공사기간: 1년 3개월

완공일: 2018년 5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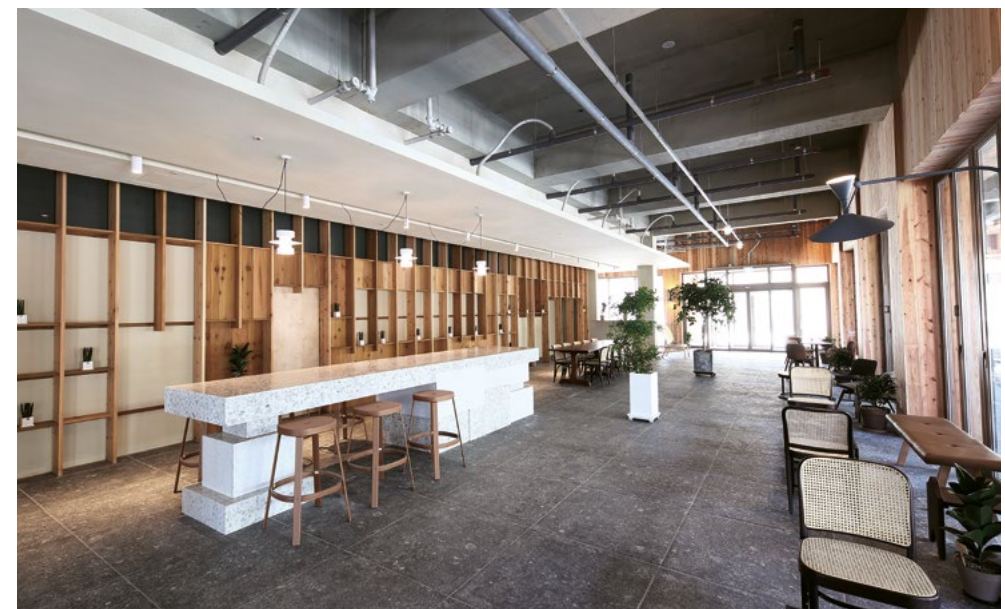
건축면적(m²): 2,549.25

디자인

파머스빌리지는 마을의 곡식, 목초, 농기계 등을 모아두던 커다란 헛간과 하루 일과를 마친 농부의 편안한 숙소를 모티프 삼아 지어졌습니다. 전망이 좋은 언덕 위의 경사면을 따라 창이 있고 그 후면에 건물의 입구, 마당, 통로 등이 있습니다. 건물의 기본 구조는 마치 전통가옥의 방들과 같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 나열됩니다. 숙소의 공간은 소박하고 단아한 조형성을 가지면서도 누추하지 않습니다.

역할

체험 방문객이 상하농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웨딩, 세미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수실과 뷔페 레스토랑을 갖춘 41객실 규모의 숙박시설입니다.



재료와 구성

목재와 자연석을 활용하여 전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색채는 주위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갈색 계통을 사용했습니다. 건축물의 외부 색채는 황토색 및 갈색 계통이 주조색이며, 강조색은 전체 면적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지붕의 형태는 가급적 박공형으로 계획하였고, 중정을 두어 로비와 부대시설의 채광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숙소의 각 객실은 객실 입구의 반대편에 발코니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코니의 바깥은 실내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 마치 방에서 나와 뒷마루에 걸터앉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옆 객실의 발코니와는 돌담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입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옥외 자연공간은 자신만의 주거 공간에 자연적인 농원의 조경과 주변 자연을 갖고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바깥에서는 건물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하농원 공간 디자인 소개

농원회관을 기준으로 농원은 외부의 주차장과 농원 내부로 나뉩니다. 농원 내부의 중앙 평지는 1차 생산 공간인 텃밭을 중심으로 2차, 3차 산업 업종의 건물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모여 있습니다.

각 건물들은 기능과 용도, 차량 동선, 경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입구부터 '생산 및 식당 구역' > '교육 구역' > '휴식 구역' > '초지 및 축산 구역'의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작업과 견학, 식사, 휴식 등 서로 다른 맥락의 활동들이 지장을 주지 않고 상호 보완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건축물들은 지역에서 자라는 꽃과 나무, 과수와 채소, 곡식을 배경으로 가급적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고려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우리가 순수한 자연과 더불어 성실히 일하고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에 자연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전원성과 자연성을 담아 디자인했기 때문에 다양한 초목들과 잘 어울립니다.

경작지

상하농원의 중심에 위치하며 농원에 필요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업 체험의 장으로도 쓰이는 곳입니다. 경작지가 농원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6차 산업의 공간인 1차 산업인 농업이 농원 중심부의 주제가 되도록 한 것인데요. 이에 가공과 서비스업종의 여러 건물들이 이 경작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1차 산업과 연관된 '순환'의 주제를 나타내며, 전원적인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본래 이 경작지는 당초 상하농원이 들어서기 전부터 농토로 사용되던 곳으로 그 흙을 바탕으로 조성되었으며, 내부의 보행로는 경작지의 적절한 분할 및 주변 건물들의 위치를 고려하여 구성, 주변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곡선적 모습을 보입니다.





목초지

카페 상하목장과 유기농 목장, 그리고 숙박시설의 사이에 있는 넓은 사료용 초지로 유기농 목장 및 퇴비사와 함께 생태순환적 유기농 축산의 구성을 이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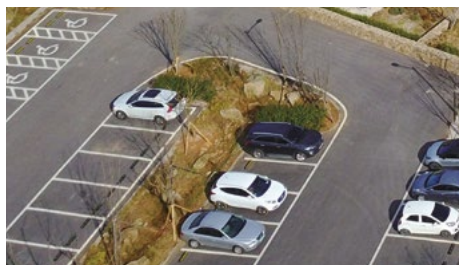
면적의 대부분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유물 산포지로 규정되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선 상하농원의 중앙 공간에 대비됩니다. 목축을 위한 탁 트인 경관의 아름다운 초원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뒷마당

빵공방, 과일공방, 그리고 농원상회의 중간에 위치한 빈터 공간으로 방문객의 집합, 행사, 교육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앙에는 잎이 무성하고 넓은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를 심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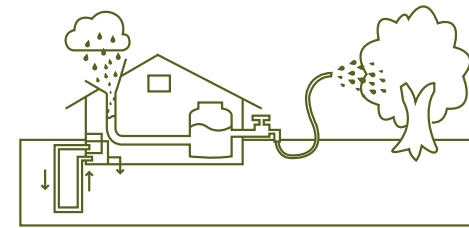
주차장

상하농원의 입구 앞의 너른 평지에 위치하며 방문객들의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승용차 113대 (장애인 5대), 대형 버스 8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넓은 공간이지만, 주차장에 떨어지는 빗물을 수용하는 스웨일 시스템으로 부근의 토양이 수분을 잃지 않도록 하는 친환경적 주차장이며 떨어진 낙엽 등도 다시 스웨일에 모여 자연 처리되는 생태적 특성을 지닙니다.

상하농원의 친환경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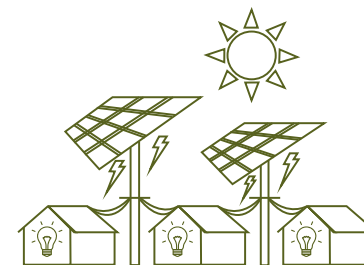
친환경 건축'은 윤리와 생태를 고려한 건축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의 부담을 감소시켜 미래 세대가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건축을 의미합니다.

상하농원은 고효율 조명기구 (LED)를 사용하므로 백열전구에 비해 1/8, 형광등에 비해 1/3의 소비전력 사용하며 수명이 약 3만 시간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함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건축물의 배치를 남향, 남동향으로 두어 계절별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상하농원은 조경 수공간 및 식재를 활용하여 여름철 태양복사에너지를 차단, 증발 냉각 효과를 이용하여 냉방 효율을 도모하고 자연환기를 위한 큰 창을 설치하여 봄, 가을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실내공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료를 이용 및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공기와 수질에 영향을 주어 쾌적하고 자연과 유기적인 건축을 실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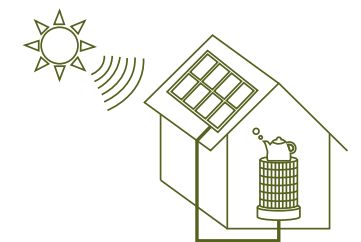
지열난방 / 스웨일 시스템

지열 히트 펌프를 도입하여 지하의 연중 일정한 온도 15도를 이용하여 화석연료의 사용 없이 사용합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없으며,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화석연료 사용보다 30% 에너지 절감을 합니다.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 건물의 지붕, 바닥에 떨어지는 빗물을 정화하여 청소, 조경, 소방용수로 사용하여 수도물 소비량을 줄이고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보전 효과 및 에너지 절감을 합니다.



태양광 사인시스템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 태양전지 모듈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하여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오염을 억제합니다.



태양열

태양열 시스템을 도입, 무한 에너지인 태양을 이용하여 물을 데워 급탕 및 난방을 제공,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 오염을 억제합니다.



04
농원사무소

09
농원식당

02
햄공방

12
동물농장

10
체험교실 A

11
카페상하목장

13
유기농목장

14
파머스빌리지

10
체험교실 B

07
빵공방

08
발효공방

03
상하키친

05
농원상회

06
과일공방

01
농원회관

상하농원 건축 디자인에 도움을 주신 분들

아트 디렉터 김범 Kim Beom	소소한 일상 속의 현실 사물에 상상력을 더해 작품을 만드는 개념 아티스트이자 설치 미술가. 지난 2011년 2월부터 상하농원 프로젝트에 아트디렉터로 합류해 상하농원의 건축 설계 및 총괄을 맡았다. 199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개념 미술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로 꼽히며, 에르메스 작가상, 서울 정도 600년 타임캡슐 광장 디자인 우수상, 베니스 비엔날레 등 국내외 미술 상을 다수 수상했다.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석사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 석사 (1988) 수료	수상 제20회 선 미술상(2007), 에르메스 미술상(2002), 석남 미술상(1995) 외 3건 수상
	전시 A SUPPOSITION(1996), UTILITY FOLDER(2000), 선 미술상 수상작가 김범 展(2007) 외 10회 이상 개인 전시 및 120회 이상의 합동 전시

건축 자문 최춘웅 Choon Choi	건축가 최춘웅은 2011년 상하농원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아티스트 김범을 도와 상하농원 건축분야 자문으로 참여했다.
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 고려대학교, 컬럼비아 대학원, 파슨스 디자인스쿨 교수	현재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건축가이자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로 2018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 큐레이터 및 작가로 참여했고 일민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트선재 등 전시에도 참여하며 건축의 영역을 독립된 문화 행위이자 지식생산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작 매일유업 평택중앙연구소 및 게이트하우스, 남산 라쿠치나, 어린이대공원 교양관 레노베이션, 점촌중학교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되는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상하농원의 건축물 디자인은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고향 운계리는 이곳 상하농원에서 각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기능성에 따라 의인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펼쳐집니다.
그 이후 실제로 공방의 생산, 레스토랑과 카페의 맛있는 음식들, 목장의 동물들과 텃밭이 생겨나면서 이야기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디자인도 전체적인 주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몇 번의 변화를 겪었고요. 그리고 이곳을 방문해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풍경과 건물을 담는 카메라의 시선들이 여유롭게 비워둔 농원의 디자인을 채워주고, 그 안에 담고자 했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자연의 순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가치, 생명과 농업의 소중함,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들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영시간: 09:30-18:00

주소: 전북 고창군 상하농원길 11-23

대표번호: 1522-3698

홈페이지: www.sanghafarm.co.kr



상하농원

